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활동목표	왕실묘역길을 탐방하면서 왕족들의 무덤을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왕족들의 삶을 알아본다.		
해설주제	조선시대 왕족들의 무덤과 그들의 삶.		
해설재료	왕실묘역길 자연자원, 역사·문화요소	소요시간(')	1시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둘레길의 의미	잃어버린 걸음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둘레길.		5분
	둘레길의 긍정적 효과	자연훼손 방지, 고지대 보호,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용편의 제공.		5분
해설주제	왕실 묘역을 둘러보고 당시의 왕가의 생활상을 엿본다.	당시 왕과 공주의 삶을 알아본다.		20분
해설심화	각각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생각해 본다.	당 시대의 평가와 현재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20분
마무리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모습과 다른 평가로 남겨진 유를 생각해 보자.	연산군, 의정공주조씨, 정의공주의 삶과 대해 생각해 본다.		10분

--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 및 소개	<p>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둘레길 탐방을 함께 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의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이렇게 맑은 날 여러분들과 멋진 둘레길을 걷게 되어 영광입니다.</p> <p>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숲을 없애고 산에 구멍을 내고 아스팔트를 깔아 오늘도 길을 냅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찾은 인간은 걸음을 잃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짧게 움직이려는 욕망의 길 위를 육중한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달리고 달릴 뿐입니다. 우리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산을 정복할 이유도 없이 그저 터벅터벅 걸으면서 삶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둘레길은 그렇게 침묵으로써 "돌고 도는 인생처럼 마지막 목적지도 없고 많이 가졌더라도 무거워 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굽이굽이 휘어진 둘레길을 걷다 보면 왜 삶은 직선이 아닌 곡선인지, 왜 옛 선인들이 걷고 걸어 만든 길을 다시 걸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되물게 됩니다. 잃어버린 걸음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둘레길, 그 길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p> <p>최근 탐방행태는 지리산 숲길, 제주도 올레길, 변산 마실길 등 다양한 유형의 걷기 탐방 수요로 변화되고 있어 국립공원 내에도 이와 같은 외부 탐방수요에 발맞추어 북한산 저지대 자락을 연결하는 북한산둘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산의 급격한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자원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써, 중요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고지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써,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 공원 이용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둘레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p> <p>북한산국립공원 내에는 우이령길을 포함하여 총 21개 구간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 둘레길을 같은 듯 다른 느낌으로 탐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부터 천천히 연산군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왕실묘역길 구간은 우이령 입구에서부터 정의공주묘까지입니다. 연산군묘를 비롯하여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부와 부군인 양효공 안맹담의 묘 등이 있어 왕실묘역길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연산군묘 소개	<p>(연산군묘에 도착 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연산군묘입니다. 연산군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셨겠지만 연산군 사후에 이곳에 묻히셨다는 것을 들레길 오기 전까지 아셨던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방되어있지만 약 5년전 까지만 해도 이곳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준기라는 신인배우를 대스타로 만들어준 영화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왕의남자’가 2005년 12월에 개봉되었고 이 영화의 홍행으로 2006년 7월부터 일반에게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p> <p>연산군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여러 번 제작이 되었기에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연산군의 삶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는 선왕들 못지않게 임금다운 면모를 가지고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즉위한지 4년째(성종실록 편찬때)되는 해에 김종직의 조의제문¹⁾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²⁾를 일으켰습니다. 무오사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요. 조의제문의 내용은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로,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글입니다. 이 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金駟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을 때 사초(史草)에 적어 넣었어요. 그 후, 연산군이 즉위한 뒤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 때의 편찬책임자는 이극돈(李克墩)으로 이른바 훈구파(勳舊派)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손의 사초 중에 이극돈의 비행(非行)이 기록되어 있어 이극돈은 김일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 중에서 발견합니다.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임을 기화(奇貨)로 하여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는 사림파(士林派)를 숙청할 목적으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일파를 세조에 대한 불충(不</p>
	<p>1).조의제문: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이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글. 이것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은근 비난하였다.</p> <p>2).무오사화: 훈구파 이극돈이 김종직 제자 김일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사림파 숙청을 목적으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일파를 세조에 대한 불충의 무리로 몰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을 움직여 큰 옥사를 일으켰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연산군묘 소 개	<p>忠)의 무리로 몰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을 움직여, 큰 옥사(獄事)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史禍)인데요.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허반(許盤) 등이 참수(斬首)되었습니다.</p> <p>또한 연산군 10년에는 생모인 폐비윤씨 사건을 문제 삼아 많은 사림학자들을 희생시킨 갑자사화³⁾를 일으켰습니다. 폐비윤씨 사건이란, 폐비윤씨는 성종의 제1계비로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성종보다 12살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종이 나이 많은 폐비윤씨보다 젊은 후궁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성종에 대한 질투가 심하여 결국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겼다가 당시 대비였던 인수대비와 성종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폐위된 후 윤씨는 친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수양에 노력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폐위된지 3년이 지난 후 인수 대비와 후궁들이 폐비를 모함하여 3년뒤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폐비윤씨 사건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폐비윤씨의 죽음에 대하여 왕위에 오르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 죽음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연산군은 폭정과 주색 향락에 빠져 국사를 소홀히 한 까닭으로 재위 12년 만에 중종반정으로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중종)에게 왕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p> <p>왕의남자에서 막바지에 두 주인공이 줄타기를 하면서 문 밖에서 군사들이 밀려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중종반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p> <p>1).왕자군의 예의: 연산군의 묘에는 곡장 3면과 장명등 2개, 망주석 1쌍, 문인석 2쌍과 향로석 등의 상석을 갖추고 있다. ※참고, 능: 왕과 왕후의 무덤 원: 세자, 세자빈 또는 왕을 낳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무덤 묘: 그 이외의 왕족의 무덤</p> <p>2).궁주: 고려, 조선 초 후궁에 대한 칭호이다. 궁주, 옹주로 불리던 칭호를 세종때 빈, 귀인으로 바꾸었다.</p> <p>3).갑자사화: 성종비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사사되었다. 윤씨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성종의 총애를 받던 엄숙의·정숙의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합심하여 윤씨를 배척한 것도 하나의 이유. 연산군은 정·엄 두 숙의를 궁중에서 죽이고 인수대비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산군은 비명에 죽은 생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폐비 윤씨를 복위시켜 왕비로 추승하고 성종묘에 배사하려 하였는데 윤씨복위에 반대한 선비들을 처형(부관참시)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처벌함.</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연산군묘 소 개	<p>왕위를 내준 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위배되었고 그곳에서 31세인 1506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후에 유배지인 강화도에 묻히셨는데 연산군 부인인 폐비신씨가 중종에게 이장해줄 것을 상언하여 1513년에 이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 때 중종은 이장을 윤허하면서 왕자군의 예의¹⁾에 따라 개장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p> <p>이곳에는 전체 5개의 봉분이 있는데 제일 위의 왼쪽묘가 연산군묘이고 그 옆의 묘가 거창신씨묘입니다. 맨 앞쪽의 두 개의 묘는 연산군의 딸(휘순공주)과 사위(부마능양)의 묘이고 한 가운데 있는 묘는 의정공주조씨의 묘입니다. 휘순공주는 연산군이 폐위되기 전에 능성구씨집의 구문경과 혼인하였으나 연산군이 폐위된 후 시아버지 구수영의요청으로 이혼당하여 친정어머니인 신씨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3년 뒤 중종에 의하여 구문경과 재혼하여 사후 이곳에 나란히 묻혔다고 합니다. 의정공주²⁾조씨는 세종이 홀로 지내는 아버지 태종을 위해 후궁으로 모셔졌지만 입궁한지 오래되지 않아 태종이 승하한 후 과부가 되었습니다. 조씨가 자손도 없이 돌아가자 세종의 뜻을 받은 임영대군(세종의 4째 아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모셨습니다. 또한 임영대군은 연산군의 부인인 폐비 신씨의 외삼촌인 까닭에 폐비 신씨가 중종에게 이곳으로 이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역의 본래주인은 의정공주 조씨입니다. 묘 주변에 여러개의 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군 묘 왼쪽에 있는 것이 망주석입니다. 망주석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토속신앙입니다. 이유는 종족보존과 자식번창을 기원하는것 때문입니다. 망주석 아래에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고대에는 왕이나 집권자가 죽으면 그 왕을 시종하던 사람들이 따라 죽는 순장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왕은 죽은 후에도 이승에서와 같은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식의 진보에 따라 이러한 순장의 풍습은 인형을 묻는 방법 등으로 대체됩니다. 진시황의 토용(土俑)이나 그 밖에 우리나라의 무덤에서도 발견되는 토용들은 산 사람을 대신한 왕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이 토용들이 점차 무덤 밖으로 기어 나와 무덤을 지키고 왕을 시종하는 문, 무인석과 같은 석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문인, 무인석 옆에 있는 것이 장명등인데요. 장명등은 돌로 만든 등기(燈器)입니다. 장명등은 사찰, 능묘 앞에 세워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방학동 은행나무 및 정의공주묘 소개	<p>가운데 있는 것이 향로석입니다. 향로석은 향을 사르는데 사용하는 분향기구로 무덤의 상석 앞이나 사찰에서 설법할 때 향로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럼 묘역을 잠시 둘러본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묘를 둘러보고 나온 후 방학동 은행나무근처로 간다.)</p> <p>이 방학동 은행나무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제1호로 수령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800~1,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늙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도 작지만 서울시 보호수중 가장 큼니다. 모습이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 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불이 날 때마다 나라에 큰 변이 생겼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1년 전 1978년에도 불이 나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진화하였다고 합니다. (은행나무를 잠시 감상한 뒤 정의공주묘로 행한다.)</p> <p>이곳은 정의공주의 묘입니다. 정의공주는 세종의 둘째 딸로 총명하고 민첩하여 세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며 출가 후에도 공주 슬하의 네 아들이름까지 세종이 직접 지어주실 만큼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화로 공주가 안맹담과 결혼 후 궐밖에 살고 있을 때 만들기를 즐겨하시던 세종이 발목에 조그만 칼 심이 박혀 의원들조차 우왕좌왕 한 적이 있었는데 공주가 지남석(자석)으로 칼 심을 빼내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등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은 저자도(지금의 뚝섬 부근) 등의 땅 50만평과 노비를 하사하여 이후 공주의 부군은 안씨 집안의 소유가 되어 지금까지 대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공주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은 ‘죽산안씨대동보’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기록¹⁾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의공주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 일었던 논란과 의문을 담아 최근 ‘정의공주’라는 소설도 출판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왕이었던 연산군묘 보다도 더 넓고 정갈하게 관리되는 정의공주의 묘를 보았을 때 당대의 권력, 재력의 대단함을 새삼 엿볼 수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는 왕족들의 무덤이 참 인상 깊지 않으신가요? 공주로 태어나서 평생을 호사와 행복의 뜰 안에서 살다간 정의공주와 15세의 어린나이에 궁에 들어와 태종의 얼굴 한번 못 본채 일반인도 아니고 후궁도 아닌 외로운 삶을 살았을 의정공주씨를 보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 간 두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p> <p>1).죽산안씨대동보(竹山安氏大同譜)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기록: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하여 여러 대군에게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 보내자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 특별히 노비 수백을 하사하였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왕실묘역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사천목씨 재실 소개	<p>이곳은 사천목씨 재실입니다. 재실이란 곳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인데요.</p> <p>우리나라의 성씨(姓氏)는 이미 부족국가시대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씨 모두가 한자(漢字)로 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중국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p> <p>처음의 성씨들은 왕가(王家)와 소수 귀족만이 써왔고, 평민들은 통일신라말기 후삼국 대동란기(大動亂期)까지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다가 고려조(高麗朝)에 이르러 왕으로부터 성씨를 하사(下賜)받아 성명(姓名)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고려 11대 문종(文宗)이후 과거제도(科擧制度)의 시행으로 일반민중에게까지 보편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p> <p>사천목씨 유래는 안타깝게도 문헌기록상의 직접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형제상목설(兄弟相睦說)이 세간(世間)에 전해져 왔고 목씨 집안에도 이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즉, 옛날 경상도 사천(泗川)지방에 형제가 살았는데 그들의 우애가 어찌나 깊었던지 그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는 나라(임금)에서까지 이 소문을 듣고 확인한 뒤 그 지극한 형제애(兄弟愛)를 표창하기 위하여 「화목」을 뜻하는 「睦」자를 성씨로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화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헌으로 우리의 고전소설에 작가·연대 미상의 한글 필사본 「목시룡전」(睦始龍傳)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분량 115페이지) 이 「목시룡전」은 「홍부전」 「적성의전」(翟成義傳)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셋 밖에 없는 형제간의 윤리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다른 두 소설은 형제간의 무정함과 시기질투를 줄거리로 하고 있으나, 「목시룡전」만은 형제의 지극한 정의(情誼)와 사랑을 통하여 '형제상목'(兄弟相睦)이 개인적·가정적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적 화평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인륜(人倫)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문학사상 매우 독특한 위치와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김기동 「한국고전문학연구」-1887, 교학사 참조) 우리나라 성씨중 「형제상목설」을 내력(來歷)으로 하는 성씨는 사천목씨뿐이며, 소설 「목시룡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형제상목설」이 단순한 설화가 아닌 실제적 사실일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반증자료가 된다하겠습니다.</p> <p>자 이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p>